

People & Life

디가부키와 현대무용의 결합

국내 첫 '부토' 명인 서승아씨 목포 공연

한국 최초 부토(舞踏·Bhutto)의 명인 서승아씨가 목포에서 '부토 아리랑' 공연을 펼쳐 부토 춤의 진수를 선보였다.

극단 깃들이 목포마당페스티벌 특별기획 초청작으로 마련한 이번 공연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모심문화예술센터(옛 유달 예술촌)에서 펼쳐졌다.

부토 아리랑은 목양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을 차고 시간이라는 칼 날 위에서 춤을 추듯 살아가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그린 작품이다. 파란만장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견뎌온 민족의 깊은 생명력을 형상화한 손짓과 잠재된 인간의 본능을 깨우는 생에 대한 강한 열망이 묻어나는 발지에서 전율과 감동이 고스란히 묻어나온다.

때로는 웅골차면서 물갈스럽고, 때로는 녹진하면서 웅골차서 처연하기까지 한 춤사위에 1시간여 동안 계속된 공연이 멈출 때까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몸짓이 예사롭지 않아서다.

특히 쇠사슬을 상징하는 광목천을 몸에 칭칭 감는 대목에서는 팽팽한 긴장감까지 감돈다. 감정입을 극대화시킨 절제된 동작에서는 그 어떤 공연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카타르시스까지 느껴진다.

공연을 마치고 무대에서 만난 서 씨는



“부토는 한마디로 영혼의 춤, 죽음의 춤, 삶의 춤”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똑같은 공연도 처음 볼 때와 두번째 볼 때의 느낌이 다른 것이 부토의 진정한 묘미”라며

“부토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내면 행위를 끌어내는 정신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관객의 호흡도에 따라 자신의 춤사위도 순간순간 다르게 반응해 생각지도 못한 동작이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연극배우였던 서 씨는 우연한 기회에 일련을 방문, 지금의 스승인 요시모도 다이스케의 공연을 접하면서 부토 춤에 매료돼

인연을 맺게 됐다.

그는 지난 1996년 첫 작품을 선보인 이래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은 물론 폴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공연을 펼쳐 아시아 보다는 유럽에서 더 유명하다.

“지난 1978년 처음 파리에 소개된 부토가 오늘날까지 유럽 무용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형식화된 틀을 깨고 무용수가 즉흥성을 발휘할 여지를 많이 남겨놓는다는 면에서 기존의 모든 테크닉과 미적 개념을 깨뜨리기 때문”이라며

“유럽에서는 최고의 예술로 평가받아 매년 공연 때마다 만석을 이룬다”고 귀띔했다. 연출도 음악도 이미지도 자신이 직접 한

다는 그는 “진짜 미치지 않으면 못 한다”고 고백했다. 분장만 하는데도 3시간이나 걸린다. 이번 ‘부토 아리랑’도 자신이 직접 연출해 목포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릴 의미가 남다르다.

“단지 노래로서의 아리랑이나 소설로서의 아리랑을 말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지금 나의 존재가 있기까지 우리 조상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되새겨보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었다”고 연출 배경을 밝혔다.

현재 부토극단 천공요람의 대표인 서 씨는 “언제나 최고 보다는 최선을 더 중요하며” “매 공연 때마다 끊어오르는 혼의 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고 했다.

극단 깃들의 손재주 삼인연출은 “서 씨의 춤은 진혼곡 같은 느낌이 들어 자꾸 눈물이 나 한 번만 봤다”며 “부토 아리랑은 춤이 아니라 춤의 경계를 넘어서 절제된 행동으로 인간의 희로애락을 그려낸 한편의 대서사시”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부토는 일본 전통예술인 ‘가부키(고전 연극)’, ‘노(가부키)’와 서구 현대 무용이 만나 탄생한 아방가르드 무용의 한 장르로, 주로 죽음이란 주제를 다뤄 ‘암흑의 춤’, ‘죽음의 춤’으로 불리기도 한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76년 전 키질하는 임자와 여인과 당시 한 살짜리 아들의 극적인 만남이 화제다. 지난 15일 신안군 임자도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박차규(77)씨가 76년 전 일본의 시부자와게이조를 중심으로 서남해 도서지역 답사팀이 촬영한 영상자료를 보던 중 키질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 추억에 잠겼다.

일제시대 엄마 품에 안겨있던 갓난아기 신안 박차규씨

76년전 영상속 어머니 모습 보며 눈시울

76년 전 일제강점기 때 촬영된 빛바랜 영상 속에 등장하는 키질하는 임자도 여인과 갓난아기, 영상 속 아기가 이제 77세 노인이 돼 당시 한 살이었던 자신의 영상과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만났다.

지난 15일 신안군 임자도 면사무소 2층 회의실, 76년 전 일본의 시부자와 게이조의 서남해 도서지역 답사팀이 촬영한 영상자료를 보던 임자도 노인회장 박차규(77)씨가 흐르는 눈물을 연방 닦아냈다.

영상자료 속에서 활달한 자태로 보리타작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진자료에도 까무잡잡한 피부에 처마저고리 차림의 어머니가 동네사람들과 함께 등장한다. 박씨는 사진 속 어머니가 보듬는 갓난아기가 바로 자신임을 알아차리곤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77세의 노인이 영상 속의 한 살짜리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었다. 영상을 함께 보던 마을 사람들도 박수와 함께 놀라움과 기쁨을 나눴다.

박씨는 19일 전화 통화에서 “영상을 보니 평생의 어머니를 다시 만난 것 같다”며 “어머니는 ‘여장부’라 불릴 정도로 생활력이 강했다”며 회고했다.

“며칠 전 모친 꿈을 꾸었다”는 그는 “일찍이 고향을 떠나 오랫동안 타향살이를 어머니를 제대로 쫓겨 드리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불효자는 읍니다’가 18번이 됐다”고 울먹였다.

1936년에 찍은 37분짜리 이 영상자료는 임자도 과시의 생생한 현장을 비롯해 민어잡이 배, 주민들의 생활상이 담겨 있었다.

영상 시연회에 참석한 80대 어르신 대부분은 영상 속에 나오는 당시의 현장을 보며 추억을 되살려냈다. 시연회장은 탄성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이 영상자료는 한국의 다도해를 영상으로 촬영한 최초의 기록으로 의미가 크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과 일본 삼민문화연구소 연구원 등 35명은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76년 전 영상과 사진 속의 섬, 임자도를 찾아 공동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시연회를 열었다. /서부취재본부=조완필기자 wncho@

공군 제1전투비행단 18만 시간 무사고 비행

(지구 5400바퀴)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하 1전비)은 18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기록은 1994년 10월 20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17년 3개월에 걸쳐 수립됐다. 비행 거리로 환산하면 약 2억 1600km, 지구 둘레를 약 5400바퀴 돌고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으로 285회 다녀온 것과 같은 것이다.

특히 F-5 전투기와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함께 운용하면서 전투기를 운용하는 비행단으로서 최초로 달성한 기록이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1전비는 지난 17일 오

후 무사고 비행기록 달성에 공헌한 강배영 소령(공사 49기)의 5명에게 참모총장 표창을, 양승민 소령(공사 공사 49기)의 4명에게 남부전투사령관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

이날 시상식을 주관한 남부전투사령관 박재복 소장은 “최상의 전투 대비 태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최정에 조종사 양성에 매진해 온 결과”라며 “이번 기록 달성을 통해 사고 없는 강한 공군인상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강배영 소령은 “18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



록 수립을 통해 비행단이 앞으로 30만, 50만, 100만 시간 무사고 기록 달성을 이어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전투조종사로서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 수행은 물론 최정에 전사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강제추방 항의투신 모로코 여

여수시민단체 등 도움 받아

남편과 국내 체류 비자 취득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추방에 항의해 투신, 중상을 입은 모로코 여성이 추방을 면하게 됐다.

최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투신사건 해결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추출 등과 관련한 상담 도중 사무소 밖으로 투신, 중상을 입은 모로코 국적의 J(39·여)씨와 남편 H(44)씨 등 부부가 최근 정부로부터 국내 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D-8 비자를 받아 앞으로 비자 유효기간 6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며 그동안 해오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사업체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9년전 입국해 여수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부부는 작년 8월 남편 H씨가 상표법위반으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 납부후 추방토록 돼있어 작년 10월 7일 여수출입관리소를 찾아가 강제추출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도중 부인 J씨가 사무소 2층에서 땅바닥으로 투신,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여수시민사회단체는 부부를 돕기 위해 대책위를 결성하고 법무부 등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요청하는 등 활동을 해왔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경희대 설립자 조영식 박사 별세



경희대학교 설립자인 조영식 박사가 지난 18일 오후 5시 13분 경희의료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1921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고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6·25 전쟁 중 이던 1951년 경희대 전신인 신흥초급대를 인수해 교육자의 길로 들어섰다.

고인은 1965년 세계대학총장회를 창설하고 총장회의 회장과 연구 명예회장을 맡았다. 또 세계대학총장회 산하 평화협의회 의장, 밝은사회국제클럽 국제본부 총재, 오토 피아평화재단 총재, 통일교문회의 의장으로 활동했다. 영결식은 23일 오전 9시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열린다. /연필뉴스

인사

◆법원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법 박길성 양형권 김재영 김성주 신현범 한소영 홍진호 문유석 장철의 박재우 조정현 이상현 이종광 문수생 박남천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강희(지원장) 문방진 ▲광주지법 순천지원 박범석 ▲전주지법 김중훈(수석부장) 고종영 김양섭 김형석 윤경아 박원규 이영훈 강상덕 은택 최규일 양영희 ▲전주지법 군산지원 정재규(지원장) 김도현 ▲전주지법 정읍지원 김삼근(지원장)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부칙 제2조(제2항) ▲광주고법 소병진 박상훈 김성홍 박상국 심재현 박현수 유경진 송승훈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법 이탄희 한지형 김남일 장재용 김종석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전경호 정원석 ▲광주지법 순

천지원 최창훈 박재형 임형태 ▲광주지법

해남지원 이미주 최영자 ▲광주지법 가정지원 이양희 김경배 서영기 ▲전주지법 김용민 실정순 이윤진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용희 안석 이진재 김원복 ▲전주지법 정읍지원 박관규 김광수 ▲전주지법 남원지원 김진만 안태운

(보임)(법조경력자 출신 법관)

◇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법 강애란 김승주 박상수 ▲광주지법 순천지원 강효원 ▲전주지법 송호철 조혜수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경주

(임명)(연수원 수료 후 즉시 임용)

▲광주지법 강지현 공우진 류지원 심우승 안현정 유정훈 추진석 ▲광주지법 순천지원 신유리 ▲전주지법 문유진 정서현 ▲전주지법 군산지원 유지상

(검임) ▲광주고법(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강은주 ▲광주고법(제주지법 소재지 근무) 이용우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宛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김일용(전 주월중 교사)·장문자씨 장남 창훈군 양철분씨 막내 박미화양=25일(토) 낮 12시 40분 출리데이션 광주호텔.

알림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텔 우산 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광주시에 거주하는 심신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주민등록

특등 지참)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6050, 광산구센터 062-942-0204.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레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 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성 문제, 상담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

1366 www.gene-korea.com

▲대한불교조계종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부 검찰 민원실 2층.

모집

▲(사)대한치아리딩협회 광주·전남 광역지부 사무처 사원=사무처 운영팀 업무, 4대보험 가입 소지 5 일 근무,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컴퓨터 활용능력 상급 능력자 우대. 062-367-5577, 085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대상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둠 수업 : 주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동구정신보건센터 주간지서비스(주 5일 운영) 회원=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 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사)인재육성아카데미 4기 교육생(http://mdsarang.com)=대학생 취업역량 강화교육, 수료생 기업 취업률 82%, 기업실무, 구직실제훈련, 예비신입사원훈련, 서울오리엔티어링, 배낭구직활동, 품성교육 등 광주전남소재대학교 2~4학년. 062-224-7733.

▲(사)녹색전국연합 전남지부=환경정화사업에 동참할 참신한 시·군지회상 모집 061-272-2207.

▲아이기 입양가기 전까지 사랑으로 양육해주시실 위탁모=25~55세 이하로 막내가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 소정의 양육비 및 교통비 지급, 양육물품 일체 지급. 광주시 동구, 남구, 북구 거주자에 한함.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

소 062-227-8877.

▲탁주·약주·증류주 등 전통주 제조법 수강생=조선대 평생교육원(월요일 오후 7~9시), 호남대 평생교육원(수요일 오전 10~12시, 오후 7~9시). 조선대 062-230-7700, 호남대 062-370-8211.

부음

▲박부석(전 윤남초등교 교장)씨 별세 백운씨 부친상=발인 21일(화) 하동 금호장례식장 010-3607-9169.

故 윤재복 님(남/75세) 子/子婦: 윤용석 / 김순옥 女/婦: 윤성희/김성훈, 성희/서복주, 선란/김범주 • 특선101호 • 장지: 화순 이삼리리 • 연락처: 227-4385	故 김영례 님(여/73세) 子/子婦: 이철환/박진숙, 경희/김지영 女/婦: 이지명/최영덕, 지진/서명철 • 특선201호 • 장지: 화순남면 • 연락처: 227-4385
故 조명순 님(여/63세) 子/子婦: 김대호/정명희, 재삼/이순영 • 호선102호 • 장지: 영락광원 • 연락처: 227-4386	故 이천덕 님(여/95세) 子: 김두봉 孫: 김성준, 정진, 한정 • 호선402호 • 장지: 영락광원 • 발인: 2월 20일 • 연락처: 227-4314

마음까지 편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